



증시 ‘널뛰기 장세’ 어떤 펀드가 좋을까?

주식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펀드 갈아타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펀드를 갈아타라고 하는데 어떤 펀드로 갈아타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주식시장이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당분간은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재테크 전문가들은 “주식형 펀드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둔 투자자라면 펀드에 넣어둔 자금 일부를 꺼내 비교적 안전한 펀드로 갈아타 수익률 관리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며 시스템펀드나 공모주펀드, 목표금액 달성형 펀드 등을 추천하고 있다.

이 같은 펀드들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리스크(위험)를 낮출 수 있는 반면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는 주식형펀드보다 낮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불안한 장세에서 유리한 시스템펀드

시스템펀드는 펀드매니저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미리 만들어놓은 매매조건에 따라 자동매매를 하는 펀드를 말한다. 거치식으로 투자하더라도 주식을 한꺼번에 매수하지 않고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량을 늘리고, 주가가 일정 수준 오르면 조금씩 매도해 수익을 실현해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가 등락이 심할수록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대한투자신탁의 ‘클래스원 오토시스템 단기 혼합펀드’가 대표적인 상품으로, 주식편입비율 및 매매수량, 가격 등이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된다. 이 펀드는 주식형 펀드가 대거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최근 1주일간 2.51%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한국투자신탁의 ‘한국부자아빠연속분할매매주식혼합’도 자동주문시스템에 의해 주가하락 때는 분할매수, 주가상승 때는 분할매도하는 연

속 분할 매매전략을 구사하는 펀드이다. 대우증권이 판매 중인 '마스터랩 대표기업지수 시스템 펀드'는 대우증권이 국내 대표기업 20곳의 주가를 기초로 자체 구성한 대표기업지수의 등락에 따라 매수, 매도가 자동으로 조절된다.

'안정+수익성' 엔 공모주펀드

공모주펀드는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일부를 공모주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채권형펀드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식형펀드보다는 안정적이어서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굿모닝신한증권이 파는 '맥쿼리 더블찬스'는 자금의 50% 이상을 우량 채권에, 30% 이하를 공모주 등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특히 채권은 국고채, 통안채 등 위험도가 낮은 채권에 60%, 신용등급 A- 이상인 회사채에 40%씩 투자한다. 지난해 8월말 설정 후 8.59%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맵스자산운용의 '맵스퍼블릭혼합투자신탁 A1'은 자산의 20% 범위내에서 공모주나 실권주 등에 투자한다. 얼마전 신규 상장한 글로벌비스와 베이직하우스 등을 펀드에 편입해 최근 3개월 수익률이 10.96%에 이른다.

대한투자증권의 '랜드마크 밸류인컴 채권혼합'과 '태광 마켓리더스 채권혼합펀드'도 각각 자산의 30% 이하, 10% 이하를 공모주에 투자한다.

목표금액 달성을 추구하는 펀드

투자자가 미리 설정한 수익률에 도달하면 안전자산으로 자동전환돼 수익률 하락을 방지하는 펀드도 있다. 교보·한국·신영투신이 시리즈로 운용 중인 '징검다리 혼합투자신탁'은 6개월마

유형	펀드명	운용사	특징
* 시스템 펀드	- 클래스원외토시스템단기혼합	대한투신	주가 상승시 매도, 주가 하락시 매수 설정 자동주시스템으로 연속분할 매매 대표기업지수에 따라 주식투자 비중 조절
	- 부지아빠연속분할매매주식혼합	한국투신	
	- 대표기업지수시스템펀드	신은자산	
* 공모주 펀드	- 맥쿼리 더블찬스 펀드	맥쿼리MM	국제 등 우위형채권과 공모주에 투자 자산의 30% 인위를 주식에 투자 자산의 10% 인위를 공모주에 투자 공모주, 실권주에 20%이하 투자 주식편입비율 10%이하, 우량 공모기업 투자
	- 랜드마크밸류인컴채권혼합	랜드마크	
	- 태광마켓리더스채권혼합	태광투신	
	- 맵스퍼블릭혼합A1	맵스자산	
* 목표 달성형	- 신영플러스안정형10호	신영투신	6개월 목표수익률 달성시 안전자산 전환 목표수익 달성시 주식 차분해 수익률 확정 목표금액 달성시 요구불예금으로 전환 수익률이 양호한 펀드 여러개에 분산투자
	- 징검다리혼합투자신탁	교보·한국·신영	
	- 클래스원다갯분할매수주식혼합	대한투신	
	- 랜드마크1억안간투자신탁2호	랜드마크	
- 포트폴리오적립식펀드	펀드별운용사		

다 새로운 운용전환 수익률(대개 양도성예금증서 금리+5%)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면 채권형 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자동 전환된다. 대한투신의 '클래스원 타겟분할매수 주식혼합'도 매달 주식 편입 비중을 늘려가다 목표수익을 달성하면 주식을 차분해 수익을 확정하는 구조로 최근 1년 수익률이 9.61% 가량에 이른다.

대우증권이 판매하는 '포트폴리오 적립식펀드'는 중장기 운용성결과 검증된 우량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로, 어떤 펀드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는 초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미래에셋 인디펜던스주식형' 'PCA업종일등주식형펀드' '신영 고배당혼합형 펀드' 등 7종에 투자하며, 목표금액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해 수익을 확정짓는다.

- 경향신문 ·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